

이화동창회보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 OF SO. CA NEWSLETTER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2011년 4월

발행 오명애 / 편집 김영강

회장 인사말



오명애 (장미 74)
남가주동창회 회장

안녕하세요? 남가주 동문 여러분
어느새 봄이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향기로운 봄 꽃
향기의 소식을 만끽하기도 전에 지구촌이 일본의 지
진, 스나미 공포 재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참담한 마
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2010년도 회장
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에도 재임이 되면서 이제 회장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
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2010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라는 큰 행사를 끝내고
저와 임원들 모두 잠깐 동안 허탈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2011년도의 사업을 시작하려
고 합니다.

2011년 남가주동창회 사업계획은 4월 20일 오전
11시,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있을 Fashion Show를 시
작으로, 5월 22일 제 8회 정기합창공연, 9월 21일 총
장배 골프대회, 10월 27일부터 진행될 보스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12월에 있을 총회 및 송년 파티를
끝으로 2011년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와 도
움, 그리고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이화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무고하심을 기원
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
립니다.

2010년 11월 동창회보에는 제 9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특집기사로 인해 남가주동창회 소식을 실지 못해,
이번 4월 회보에 2011년 소식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박화자 (간호 66)
남가주동창회 이사장

존경하는 남가주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학창시절 이화대학 기숙사에서 교정을 오르내릴 때마
다, 마주치는 빨간 사르비아 꽃에 황홀하게 끌려들었
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지금 제 나이가 믿어지지 않
을 만큼 세월이 갔습니다.

이화 모교를 떠나서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듯
이 동창회를 밖에서 쳐다만 보면서, 언젠가는 모교
동창을 위해 조금의 봉사로 도울 수 있을 때에 무엇
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동창회
의 문을 들여다보며, 제가 해야 할 Mission을 순리대
로 조용히 실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화남가주동창회는 모교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선후배 동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엇보
다 역대 이사장님과 특히 임수경 전이사장님께 동창
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
명애 동창회장님과 임원들께서 총장님과 총동창회장
님을 모시고, 2010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성황
리에 마친 것을 큰 감동으로 치하드립니다.

곳곳에서 성실히 사회의 모범이 되어 생활하시는
이화동창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항상
동창회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교 소식

김선옥 총장의 신년인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신묘년이 되기를



본교는 1월 3일(월·오전 10시) 신년행사를 갖고 새로운 신묘년(辛卯年)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김선옥 총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올해는 이화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 이화가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공동체, 인간적 공감이 함께 하는 따스한 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이화가 교직원들에게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연구와 교육의 일터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신나는 대학생활이 가능한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취임식 거행



이임하는 윤후정 이사장(왼쪽)과 장명수 신임 이사장(오른쪽)

본교 법인 이화학당의 윤후정 (尹厚淨) 이사장 이임식 및 장명수 (張明秀)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3월 2일(수) 오전 11시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거행되었다. 이사장직을 이임하는 윤후정 이사장은 “어린 시절 식민지 교육과 공산교육을 경험하고, 6.25 전란을 지나오며 겪은 힘없는 나라의 설움과 여성으로서의 비애가 인생의 항로를 결정했다”며, “여성의 인간화와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의 동력화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헌법학자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일에 힘쓰고, 이화의 총장과 이사장으로서 이화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3월 2일부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이끌게 된 장명수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화의 스승님들께서 한평생 헌신하신 자리에 서는 것이 영광이기 전에 큰 두려움”이라며 “두려움을 스승과 채찍, 반려 삼아 앞선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화인 모두 함께 이웃나라 일본 돋기에 나서

일본 유학생들, 정문에서 성금 모금 캠페인



본교 정문 앞에서 모금활동 중인 일본인 유학생들

본교가 재학생, 일본인 유학생,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본 돋기 활동에 나섰다. 모금 활동을 제안한 교환학생 아키코 콘도(모모야마 카쿠인 대학, 89년생)씨는 “일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학을 와 있는 형편이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금에 나섰다”며, “플래카드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금 현장에 나오는 것까지 프랑스, 미국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다가 이화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모금한 성금은 일본 적십자사에 ‘Prayer for Japan in Ewha’라는 이름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온라인 모금활동도 진행한다. 학교가 함께 일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재학생들의 건의를 받아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 졸업생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 창구를 개설했다. 이화여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 계좌를 알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홈페이지 <http://www.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100년사 발간

5명의 첫 졸업생으로 출발해 전세계 18만 규모의 동창회로 성장한 총동창회 역사 집대성

본교 총동창회(회장 김순영)가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100년사』를 발간했다. 미래 이화의 지표가 될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1908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동창회 100년의 역사를 3년여에 걸쳐 한 권의 책(165mmX245mm, 840 Page)으로 엮어낸 것이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지역별로 국내 25개 지회,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하는 북미주 35개 지역 지회, 오세아니아 3개 지회와 유럽 3개, 남미 2개, 아시아 8개 지회가 결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교우회, 약사회, 문인회, 언론인클럽, 법조인회, 경영인포럼, 회계사회, 행정인클럽 등 다양한 전문직 동창클럽이 활동 중이다.

2010년 12월 28일(화) 오후 3시 본교 ECC 이삼봉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김선욱 총장, 윤후정 이사장을 비롯해 장상·신인령 전 총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100년사』의 출간을 축하했다.



(왼쪽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 주영희 전 동창회장, 최명숙 전 동창회장, 장의순 전 동창회장, 김순영 동창회장, 김선욱 총장, 신인령 전 총장, 장상 전 총장

동문 소식

오명애 동창 (장미 74)



지난 2월 20일, 현 남가주동창회장인 오 동창 집 안의 4대에 걸친 합동 생일잔치가 80여명의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Garden Suite Hotel에서 열렸다. 주인공들은 60세 회갑을 맞이한 오 동창을 비롯하여,



83세의 친정어머니 노근애 여사, 34세의 딸 박민영 님, 첫 돌을 맞이한 손녀딸 Sophia 김윤아 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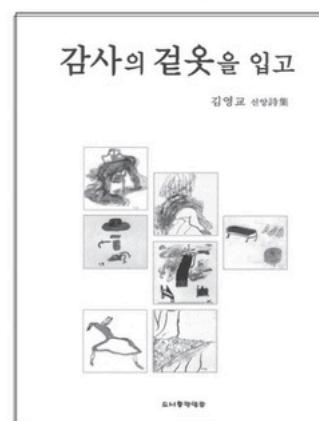
김영교 동창 (영문 63)

제 6시집 『감사의 겉옷을 입고』 출간 제 5시집으로 노산문학상 수상

김 동창의 여섯 번째 시집, <감사의 겉옷을 입고>가 출간되었다. 오산대 총장 홍문표 평론가는 전체가 감사와 환희의 시적 칸타타라고 전제하고 죽었던 영혼의 회복에 대한



신앙적 감사, 두 번이나 사경을 헤맸던 육신이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 치유의 축복을 체험한 진실이 감사와 환희, 바로 승리의 노래라고 평했다. 표지화는 김영태 화백, 총 75편의 믿음의 시편을 담고 있다.



또한 제 5시집,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로 제 35회 노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김 동창의 작품을 놀라울 정도의 진솔함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현재 미주시인 협회부이사장, 이대동창문인회 회원, 한국 팬클럽 회원, 미주이대선교회 회원으로 헌신하고 있다.

동창회 소식

임원회



2010년, 4월 8일로 시작된 이번 회기의 임원회에서는 4월 동창회보 발송이 있었고, 합창단 정기공연, 총장배 Golf Tournament, 등 크고 작은 행사에 관해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며, 정기임원회, 임시임원회 등 모두 여덟 번의 모임을 가졌다. 특히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를 본 지회 주최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곳 로스앤젤레스 Bonaventure Hotel에서 개최하게 되어 임원회를 더 자주 갖게 되었다. 올 초에는 계획에도 없었던 행사가 7월 들어 갑자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7월 이후의 임원회에서는 주로 북미주지회 연합회”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 행사로 인해 올 초에 계획했던 주요행사인 9월 한가위 잔치 겸 패션쇼는 잠정 연기되었고, 올 한해를 마무리할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는 11월 13일, 북미주지회연합회 Annual Banquet으로 대신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2월 25일, 3월 8일, 3월 22일, 세 번의 임원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는 오명애 회장 및 1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Fashion Show (4/20 예정),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5/22 예정), 총장배 골프대회 (9/21 예정), 총회 및 연말 Party (12/4 예정) 등의 2011년 사업계획을 의논했다. 그리고 북미주지회연합회 결산 및 남가주동창회 결산 재무보고가 있었다. 현재 잔고는 CD 예금 \$ 72,868.23, 보통예금 \$ 5807.77 이다.

이사회

2010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Garden Suite Hotel에서 후반기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 회계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고, 임수경 이사장, 오명애 회장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새 이사에 이윤주 (체육 83) 동문이 선출되었다. 2011년 이사진과 임원진은 2010년 그대로 연임됐다.



2011년 3월 11일 오전 11시 Garden Suite Hotel에서 전반기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임기 중인 임수경 (음대 75)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동창회 회칙에 따라 부이사장인 박화자 (간호 66) 동문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0년도 동창회, 특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오명애 동창회장의 사업보고가 있었고, 김정순 부회장이 201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배용 전총장 로스앤젤레스 방문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저녁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이배용 전총장의 환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는 약 80여 명의



동문과 환영객들이 참여했다. 동문합창단의 공연이 분위기를 더하였고, 저녁식사 후 2부에서는 “한일합방 100주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총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모두들 지난 역사의 새로운 해석에 귀 기울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 7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공연



2010년 5월 16일, 제 7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 공연이 약 450여 명의 동창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가곡과 성가 등, 6부로 나누어 진행이 된 이 공연에는 성가, 한국 가곡, 그리고 Musical "Cat"와 "My Fair Lady"에 나오는 외국 노래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으며, 정매인(성악 60)동문의 독창과 이화동문중창단의 순서도 곁들여져 공연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곡중 Solo에는 정원혜(성악 83) 동문, 지휘에는 엄인용(성악 72) 동문, 피아노 반주에는 최예린(피아노 04) 동문, 올갠 반주에는 장경해 (피아노 75) 동문이 수고했다.



선교부

선교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Olympic과 Harvard에 있는 한국 Plaza 4층 Community Hall에서 모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많은 수고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139명의 동창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선교비로 그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수훈 (59 화학) 목사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정태숙(교육 61) 동문의 San Diego 기도처에서 모임을 가졌고, 2011년 1월 12일에는 조남화(간호 63) 회장댁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음대 동문회 “남가주 이음회” 결성



2011년 2월 19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JJ Grand Hotel에서 음대 동문들의 첫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오명애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김민자, 지성심, 김원숙, 엄인용, 원순일, 이귀임, 장경해, 정매인, 정원혜, 조경배, 한명심, 홍정실, 황선영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모임 명칭은 “남가주 이음회”로 한다.
2. 회비는 1년에 한 번 30불로 한다.
3. 모임은 2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 토요일로 한다.
4. 식사비는 모일 때마다 20불로 예산한다.
5. 회장에는 장경해 (피아노 75) 동문이 선출되다. 연락처: (909) 821-2477

제 8회 총장배 골프대회



2010년 6월 17일, Coyote Hills Golf Course에서 총장배 Golf Tournament가 있었다. 이 행사는 매년 직계 동문자녀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 날은 동문들, 손님들, 모두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게임 후에는 Coyote Hills Golf Club Banquet Room에서 저녁 식사와 시상식이 있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과 기념품 등도 증정되었다. 남자 챔피언에는 72타의 Paul Lee, 여자 챔피언에는 82타의 함명자 (체육 83) 동문. 1등은 최애리 (무용 77) 동문이었고, 근접상은 장계원 (도서관 76) 동문이 받았다.



건미회



건미회의 정기월례회는 한 달은 LA에서, 한 달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매달 열 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로의 생일을 쟁기는 등, 사랑의 교제를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는 본교에 도네이션이나 장학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 행사는 2010년 7월 16일에 JJ Grand Hotel에서 GCF 행사 참여 차 서울에서 온 김숙자(체육 64) 교수의 환영식을 7월 월례회와 더불어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일본에서 온 최영숙(체육 68) 동문, 서울에서 온 전선혜(체육 83) 동문과 이윤주(체육 84) 회장 외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2010년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때에는 회원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탈렌트 쇼에서는 힙합재즈 댄스로 2등 상을 타기도 했다. 12월 5일에 건미회 파티가 월셔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40여 명의 회원과 사위님들이 참여하여 푸짐한 상품과 더불어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게임, 조별 즉흥댄스 등의 프로그램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1년 1월 15일에는 총무 이지은(체육 92) 동문집에서 신년파티 겸 정기모임을 가졌다. 2월 모임은 플러턴에서 있었는데, 김봉덕(체육 60) 선배님께서 격려차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다.

합창부

2010년 5월 정기연주회가 끝난 후, 8월까지는 휴가를 가졌고 9월 3일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의 임원에는 단장에 김혜순(약학 68) 동문, 이사장에는 박광순(기문 64) 동문이 선정되었다. 9월 11일에는 할리우드 장로병원 한가위대잔치에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에델바이스, 세레나데 등의 노래를 불러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교민들을 즐겁게 했다. 12월 14일에는 연말 모임이 장경혜(음대 75) 동문 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30여 명의 단원이 참석했다.

2011년 1월 8일에는 합창부 단원 30여 명이 이승자(체육 65) 동문 댁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1년 계획과 5월 22일에 열릴 남가주동문 합창단 정기공연에 관하여 의논했다.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크렌셔와 8가에 있는 물댄동산교회에 모여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화 동문이면 누구나 합창단에 가입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 818-500-8547 김혜순 단장)

제 8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은 2011년 5월 22일 저녁 7시 30분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초대합니다

Fashion Show

지역사회와 동문자녀 장학기금을 위한 Fashion Show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20여 명의 동문들이 모델을 설 예정이며 의상협찬, 광고 수익금, 동창회 기념품 등 \$8,000 상당의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icket은 \$60입니다. 프로그램에 실리는 광고비는 \$200입니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으니 동문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오명애 회장 (714-723-1616)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가든 스위트 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제10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201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10월 27일(목)부터 30일(일) 까지 보스턴에서 열린다. 올해의 연합회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문의는 오명애 회장 (714-723-1616) 또는 정현숙 총무 (213-215-1321)에게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초대의 글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미국 역사의 현장 보스턴으로

- 날짜 : 2011년 10월 27일(목요일) - 10월 30일(일요일)
- 장소 : Westin Waltham Boston Hotel
70 Third Avenue, Waltham, Ma 02451
Tel : 781-290-5665 Fax : 781-890-5959

Code Ewha 공항에서 라이드: 보스턴 한인콜택시 774-285-9466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보스턴지회 회장
조수현(수학 76)
T.508-333-1757

남가주 이화 동창님들께 드리는 초대의 글

지금 당신이 이대입구에 내리신다면 너무 설레는 마음에, 허방을 짚듯 뒤풋대면서도 곧 익숙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교문을 향해 달릴 것 같지 않으신지요? 4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꽂다운 우리가 머물렀던 곳, 그리고 정겨워서 고향 같기도 한 곳, 상아탑과 젊음이 뒤엉켜 턱없이 도도했던 콧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 추억의 모교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화인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교육도시 보스턴에서 학창 시절의 당신을 만나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엄마 혹은 아내가 아닌 철저하게 이화인인 나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금요일엔 Plymouth 민속촌에서 400여 년 전의 미국을 체험한 후, 폴리비어가 말을 탔던 길을 통해 렉싱턴과 콘코드까지 갑니다. 토요일엔 하바드와 MIT, 보스턴의 오래된 교회들과 미국독립선언문을 읽은 Old State House, Quincy Market, Boston Harbor, Boston Public Garden . . . 일요일엔 예배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상쾌한 산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천연색으로 물든 보스턴의 거리, 그리고 유럽식 복고풍 시내를 돌다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 정말 잘 왔구나.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네” 하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 유익한 세미나와 멋진 만찬의 향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창립 125주년을 축하하며, 뜻 깊은 이화인의 만남이 곧 모교의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녹미회

2010년 *4월 14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세웠다.
*5월 12일 Descanso Gardens Sketch & Camera Tour를 가졌다. *6월 9일 천희정(장미 85) 동문이 조명에 대해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강의했다. *7월 17일 Getty Museum Korean Docent Tour에 참여하여 한인 봉사자의 설명을 들었다. *8월 11일 민화협회 회장인 성기순(섬예 68) 동문의 민화강습이 있었다. *10월 13일 11월의 작품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11월 12일, 13일 본 동창회 주최 녹미회 후원으로 동창기금모금 작품전시회가 북미주지회연합회에 결들여 Bonaventure Hotel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1월 2일 모임을 갖고 배금신 회장, 배미혜 회계, 정보경 총무 등, 현 회장단을 2011년 그대로 재임하기로 결정했다. *2월 9일 Ann 330 Gallery를 방문하여 한국의 신예 12인 전(12 Young Artists)을 관람했다.

*3월 9일 규방공예를 강의하는 지해나 씨를 모시고 감침질, 공그르기, 흠질 등을 배워, 미니조각보를 완성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녹미전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안건들을 교환했다.

골프부

2010년 *4월 19일 Whittier Narrows Golf Club에서 2010년도 첫 Golf 모임을 가졌다. 임원과 회원 8명이 참가했으며 게임 후에 근처의 식당에서 2010년도 회계 인수인계가 있었다. *6월 15일 Coyote Hills Golf Course에서 오명애 동창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이 모여 6월 17일에 있을 총장배 Tournament를 위해 사전 준비 Golf 모임을 가졌다.

2011년 총장배 골프대회는 9월 21일, Westridge Golf Club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 자세한 문의는 장계원 동문 (도서 76)에게 해주기 바란다.

2011년 임원진

이사진	임원진
이사장:	명예고문: 성정순(체육 49)
박화자(간호 66)	고 문: 고은주(영문 61)
부이사장:	김영교(영문 63)
문금숙(국문 63)	
고은주(영문 61)	회 장: 오명애(장미 74)
김경숙(정외 55)	부회장: 김정순(간호 75)
김경숙(음대 64)	장계원(도서 76)
김동실(무용 67)	총 무: 정현숙(체육 87)
김봉덕(체육 60)	재 무: 이정희(경영 85)
김부자(교육 61)	정에스더(교공 75)
김영교(영문 63)	편 집: 김영강(국문 66)
김정순(간호 75)	사 업: 장경해(피아노 75)
김주경(음대 77)	서 기: 양이신(제약 83)
동양순(영문 44)	홍 보: 김동순(식영 77)
박화자(간호 66)	최애리(무용 77)
박혜경(교육 69)	설 외: 독고미경(설예 85)
성정순(체육 49)	선교부: 조남화(간호 63)
송은섭(법과 57)	건미회: 이윤주(체육 84)
송정현(교육 57)	합창부: 이혜순(영문 70)
안성옥(가정 61)	녹미회: 배금신(조소 71)
오명애(장미 74)	골프부: 하명숙(체육 66)
이귀임(음대 63)	의 대: 김애권
이숙현(가정 67)	약 대: 윤갑모(약학 77)
장계원(도서 76)	가정대: 김동순(식영 77)
문금숙(국문 63)	문리대: 장계원(도서 76)
정태숙(교육 61)	법정대: 고경희(비서 79)
정매인(성악 60)	사법대: 황진희(특수교육 83)
정현숙(체육 87)	음 대: 장경해(피아노 75)
조남화(간호 63)	
하명숙(체육 66)	

2011년 회비 납부 현황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사회비	동창회비	
고은주(영문 61)	고복주(생물 70)	동양순(영문 44)
김경숙(음대 64)	고은주(영문 61)	문금숙(국문 63)
김경숙(정외 55)	갈영옥(피아노 66)	문인순(생미 68)
김동실(무용 67)	김동실(무용 67)	임경희(간호 76)
김봉덕(체육 60)	김봉덕(체육 60)	장경해(피아노 75)
김부자(교육 61)	김부자(교육 61)	장계원(도서관 76)
김영교(영문 63)	김영교(영문 63)	정매인(성악 60)
김정순(간호 75)	김정순(간호 75)	정에스더(교공 75)
김진현(체육 49)	김미수(가정 62)	정태숙(교육 61)
동양순(영문 44)	김봉덕(체육 60)	정현숙(체육 87)
문금숙(국문 63)	김부자(교육 61)	조남화(간호 63)
김순배(간호 73)	김순배(간호 73)	조은미(피아노 82)
박화자(간호 66)	김양숙(불문 70)	최기홍(교육 62)
송은섭(법과 57)	김엘렌(국사 87)	최애리(무용 77)
송정현(교육 57)	김영강(국문 66)	최연(사학 77)
안성옥(가정 61)	김영교(영문 63)	추경아(영문 89)
오명애(장미 74)	김영순(간호 73)	추춘실(영문 67)
이숙현(가정 67)	김영옥(생미 70)	하명숙(체육 66)
장계원(도서 76)	장경해(피아노 75)	하영옥(법학 70)
문리대: 장계원(도서 76)	정매인(성악 60)	김용인(간호 75)
법정대: 고경희(비서 79)	정태숙(교육 61)	김정순(간호 75)
사법대: 황진희(특수교육 83)	정현숙(체육 87)	김정자(수학 62)
음 대: 장경해(피아노 75)	조남화(간호 63)	김주경(관현악 77)
		김혜숙(간호 72)
		나일선(간호 76)
		독고미경(설예 85)
		이윤주(체육 84)

회비는 남가주동창회 P.O. Box 74173, Los Angeles, CA 90004로
보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계담당 이정희(경영 85) 동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714) 290-6116 E-mail: julia-lee@live.com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O. Box 74173, Los Angeles, CA 90004-0173